

韓·美·日의 經濟的 3角關係

辛 昇 哲

〈漢陽大學校教授·經博〉

1. 「블랙·홀」에 直面한 美國經濟

美國은 세계의 최대 경제대국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의 변화는 세계경제 변화에 있어서 최대의 變數로 작용한다. 이러한 미국이 무역수지적자의 累增으로 세계제일의 債務國이라는 疾病 즉 「美國病」에 걸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블랙·홀(Black hole)」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한 交易擴大로 경제적 好況과 成長을 누리왔던 국가들도 수출의 對美從屬的 成長이라는 질병으로 困境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이 回生하자면 그 交易相對國이 臥病상태에 들어가야 하며 交易相對國이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유지하자면 미국이 病床에 들어 누어야 한다. 오늘날의 국제적 경제정세는 이러한 二律背反的 狀態하에서 세계경제적 위기에 直面하고 있는 격이다.

미국은 保護主義와 換率調整이라는 兩者擇一의 狀態하에서, 초기에는 守勢的 立場에서 貿易戰爭보다는 通貨(換率)戰爭에 더 力點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攻勢的 立場에서 市場開放이나 換率切上에 대한 壓力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상대국의 經濟政策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內政干涉的 行爲까지 자행하고 있다.

美國은 1次的으로 1985년 10월에 先進工業國 특히 일본과 서독을 겨냥한 「달러」의 合意的

평가절하를 단행하였으며, 兩國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金利引下와 租稅引下를 통한 內需擴大 景氣浮揚策을 강요하여 왔다. 서독과 일본은 30~40%에 이르는 두자리 숫자의 平價切上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계속하고 있으나 美國의 무역수지 또는 국제수지는 좀처럼 改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新興工業國들은 싼 「달러」, 低油價, 低金利라는 3低現象에 편승하여 對美 수출을 크게 擴大시키면서 國際收支黑字를 기록하였다. 이에 미국은 2次的으로 대만과 韓國에 대해 市場開放과 平價切上 壓力이라는 兩面攻勢를 가하게 되었다.

원貨는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切上되어 왔으며 한자리 숫자의 切上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무역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우기 앞으로 두자리 숫자로 원貨가 切上되고 最近에 展開되고 있는 勞使紛糾가 長期化되거나 擴大된다면 國民經濟全般에 暗雲이 깃들게 될 것이다. 게다가 平價切下에만 익숙한 國民經濟的 體質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杞憂가 現實化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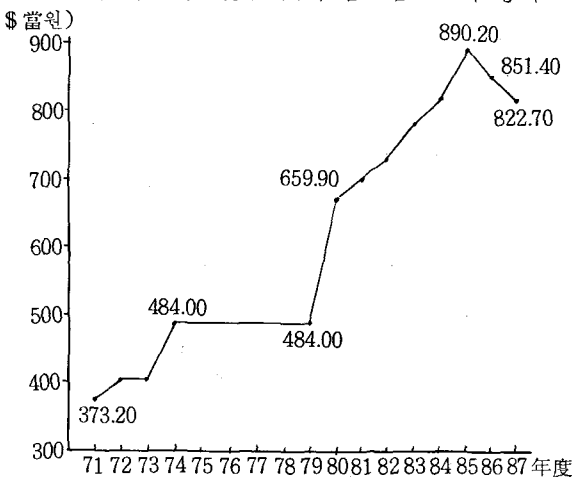
2. 「달러」弱勢의 經濟的 效果

「레이건」行政府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레이저노믹스」란 경제정책을 통하여 租稅減免을 단행함으로써 財政赤字를 확대시켜 왔다. 聯

邦準備理事會(우리의 中央銀行)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緊縮政策을 강행함으로써 高金利를 유발시켜 왔다. 그리하여 美國의 「달러」는 그 實效換率이 70% 이상이나 高評價되어 왔다. 그 결과 物價安定과 實質所得의 증가를 도모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실적이상의 支出擴大와 外國資本의 流入이 이루어짐으로써 貿易赤字가 계속 累積되어 왔다. 따라서 美國은 自由貿易政策에서 保護貿易政策으로 방향을 轉換하게 되었다.

그러나 高「달러」로부터 低「달러」로 反轉하여 보호무역정책을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고 또 다른 경제적 부작용만 誘發되어 왔다. 「달러」의 평가절하는 輸入原價를 상승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再燃의 가능성을 증대시켰고 「인플레이션」豫防策인 緊縮政策은 高金利를 유발시켜 왔다. 高金利는 한편으로는 「코스트 푸시(cost-push)」效果로 物價上昇壓力을 가중시켜 무역수지 개선효과를 相殺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投資誘因을 감퇴시킴으로써 경기를 후퇴시켜 왔다. 이와 같이 「달러」의 평가절하는 肯定的 효과보다는 否定的 효과만을 더 表出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달러」의 평가절하는 미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對外的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켰다. 日本이나 서독은 對美輸出이 감소됨으로써 경제



<그림-1> 換率推移(1971~1987)

적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內需擴大를 통하여 景氣를 振作시켜야 하나 이러한 정책은 輸入擴大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피되어 왔다. 그 결과 不景氣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世界經濟에 不況의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다. 더욱이 外債를 많이 안고 있는 產油開途國은 「달러」의 購買力減退와 油價引下에 따른 低油價 등으로 二重苦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1次產品 輸出開途國은 世界景氣不況으로 인한 輸出不振과 價格引下라는 二重苦에 시달리게 되었다. 즉 先進工業國은 불경기에 시달리고 開途國은 外債苦라는 開途國病에 더욱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韓國은 3低中에서도 그 中核이 되는 「달러」弱勢에 편승하여 國際收支黑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70年代 中반부터 10여년 동안은 高油價, 高金利, 高「달러」라는 3高現象이 經常收支赤字를 누적시켜 外債가 격증되어 왔다. 그러나 80年代 中반부터는 정반대인 3低現象으로 輸出이 크게 擴大되었다. 그리하여 1970年代의 두차례에 걸친 돌발적인 石油波動으로 제동이 걸렸던 未成熟債務國으로부터 成熟債務國으로의 進入이 再開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輸出黑字는 對內的으로는 通貨增發, 對外的으로는 元貨切上 壓力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두가지 결과를 가져 왔다.

3. 元貨切上 壓力

輸出增大는 外貨集中買入制 때문에 필연적으로 外貨保有高와 通貨量을 증대시킨다. 外貨保有高의 累增으로 元貨切上の 가능성이 높아지면 換差益을 겨냥하는 投機性 「달러」와 國內高金利에 따른 金利差를 目的으로 하는 투기성 「달러」의 流入이 加熱하여 元貨切上の 가능성은 더욱더 現實化되어 간다. 그리고 通貨量의 증대는 「디멘드 풀」效果로 物價上昇壓力을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되며 市中의 流動性 증대는 證市를 과열시켜 투기성자금의 流入을 유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출이 증대하면 할수록 貿易戰爭과 換率戰爭은 더욱더 加熱되며 이로 인하여 市場開放壓力과 元貨切上壓

力도 덩달아 加重된다.

원貨가 切上된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절상은 市場實勢要因에 의해 야기된다기보다는 美國의 인위적인 壓力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더우기 절상폭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때 그것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효과는 지대하며 무역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는 더욱 더 치명적인 것이 된다. 원화절상은 元高時代의 進入을 뜻하며 그리고 지금은 元弱勢時代에서 元強勢時代로 轉換하는 과도기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伸縮의 柔軟性을 얼마나 빨리 갖추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진다.

원화절상은 수입업자를 비롯한 外貨債務業者 즉 달러수요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고 輸出業者를 비롯한 外貨債權者 즉 달러공급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輸入面에 있어서는 原價를 引下시키고 換差益을 發生케 한다. 원자재수입은 물가상승에 억제작용을 하며 完製品輸入은 國內市場競爭에서 輸入品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리고 外貨代金決濟는 뒤로 늦출수록 換差益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해진다. 따라서 원貨切上은 外債減少의 직접적인 契機가 될 수도 있으나 換差益을 노려 상환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

輸出面에 있어서는 輸出價格의 引下效果와 換差損을 발생케 한다. 切上幅이 커질수록 換差損이 커지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은 위협을 받게 된

다. 그리고 損益分岐點을 넘어서게 되면 輸出赤字를 示顯하게 된다. 따라서 切上幅이 實勢 이상으로 확대되면 輸入은 크게 확대되고 輸出은 크게 減退되어 모처럼 이룩한 무역흑자기조까지도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4. 當面한 새로운 與件

우리 韓國의 對外關係는 韓·美·日의 3角關係로 규정지을 수 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對美輸出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그 依存度가 40% 수준에 이르렀으나 對日輸出은 상대적인 微增에 그쳐 그 의존도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對美輸入은 微增勢이나 對日輸入은 198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의존도가 35%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美國과 日本은 한국의 총수출에서 55% 이상을, 총수입에서도 55% 이상을 占有하는 2大交易相對國의 地位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1985년과 1986년에 걸친 2년의 對美貿易收支는 큰 黑字規模를 示顯하였으나 반대로 對日貿易收支는 크게 惡化되어 큰 赤字規模를 시현하였다. 그리하여 美國은 輸出市場으로서, 日本은 輸入市場으로서 그 중요성이 변모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美國에서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日本에다 갖다 바치는 격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現實經濟가 經濟理論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된다. 즉 輸出入

韓國의 對美·日 交易規模

<表-1>

(單位: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총수출 (A)	미국 (B)	일본 (C)	B/A (%)	C/A (%)	총수입 (D)	미국 (E)	일본 (F)	E/D (%)	F/D (%)	미국 B-E	일본 C-F
1977	100.5	31.2	21.5	31.1	21.4	108.1	24.5	39.3	22.7	36.4	+ 6.7	- 17.8
1980	175.1	46.1	30.4	26.3	17.4	222.9	48.9	58.6	22.0	26.3	- 2.8	- 28.2
1985	302.8	107.5	45.4	35.5	15.0	311.4	64.9	75.6	20.8	24.3	+ 42.6	- 30.2
1986	347.7	138.8	54.3	40.0	15.6	315.8	65.5	108.7	20.7	34.4	+ 73.3	-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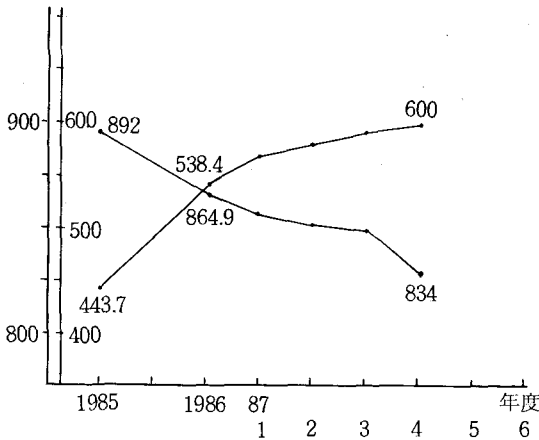
資料: 경제기획원, 韓國經濟指標, 1987.

爲가 換率의 實勢와 반대되는 方向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특이성이 對美·日 交易關係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달러」에 대한 원貨가 계속 切下되어감에도 불구하고 對美輸出은 계속 크게 증가되어 왔으며 「엔」에 대한 원貨가 크게 切下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對日輸入은 크게 증가되어 왔다. 이것은 곧 우리 韓國의 輸出은 對美一邊倒의 方向으로 그리고 輸入은 對日一邊倒의 方向으로 그 의존성이 硬直化되어 있다는 構造的 特性을 말해주는 것이다.

美國은 각종의 保護立法을 통하여 對韓輸入規制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市場開放과 원貨切上의 壓力도 계속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對韓收支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韓國經濟의 強點이라기보다는 美國經濟의 弱點 즉 美國病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對韓規制와 壓力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韓國企業은 대부분이 外資導入에 의해 組立·加工式 위주로 建設되었고 그리고 部品 및 原資材 등 中間財產業이 育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對外依存性이 높다. 그중에서도 특히 對日依存的 從屬性이 더욱 深化되어 왔다. 따라서 對日 「엔」貨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輸入은 좀처럼 抑制할 수 없는 硬直性을 띄고 있다. 그리고 日本의 복잡한 流通構造, 소비자들의 購買樣態 및

(원/\$, ¥)



資料: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그림-2> 달러와 엔의 변동추이

輸入의 신속한 內需轉換體制 등 그들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對日輸出擴大란 좀처럼 攻略하기 어려운 要塞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

美國의 壓力에 의한 輸入自由化는 한국의 對日輸入만을 증가시키고 美國의 對韓輸出은 별로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즉 美國의 收支改善을 위한 한국의 市場 개방이나 원貨 절상은 한국의 對日收支만 惡化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실적 여건은 逆理現象을 유발시켜 韓·美·日의 3角關係에서 不安한 不均衡만을 심화시키고 있다.

5. 「엔」貨強勢에 따른 日本의 對應

日本은 「엔」貨가 40% 이상이나 切上되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國際收支黑字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엔」貨가 지나치게 低評價되었었다는 것을 立證하기도 하나 또한 日本이 賢明한 對應策을 강구하였다는 것을 反證하기도 한다. 그 對策은 短期的이고 微視的인 것과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前者는 各企業體가 經營合理化를 통하여 原價를 切下시키고 製品의 品質向上을 통하여 價格을 引上하는 등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後者는 未來指向的 「비전」에 입각하여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는 것이었다.

日本의 産業구조는 先進國型과 新興工業國型의 中間位置에 놓여 있다. 즉 第3次産業보다는 第2次産業의 비중이 높고 製造業商品의 대부분이 新興工業國과 競合關係를 갖고 있다. 先進工業國에 대해서는 第3次産業이 脆弱하고 新興工業國에 대해서는 價格競爭에 불리한 실정이다. 따라서 製造業에 있어서는 價格競爭으로부터 品質競爭으로 方向轉換을 進行시키고 있으며 第3次産業을 育成하여 先進國型으로 産業構造의 改編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自動車工業의 경우 소형차는 한국에 移讓하고 電子操縱이나 四輪驅動車 등의 開發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造船工業에 있어서도 一般船舶은 韓國에 移讓하면서 專門特殊船에 注力하는 方向으로 方向을 전환하고 있

다. 말하자면 規模經濟에 의한 標準品の 대량생산보다는 製品の 高級化를 통하여 高附加價値化함으로써 價格支配段階로 전환하고 있다. 그리하여 新鴻公업국과의 經協관계에서 한 次元 앞서가는 戰略을 구사하고 있다.

國內市場保護에 天賦的 國民단합의 재능을 갖고 있는 日本은 선진公업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製造業은 물론 서비스산업을 위시한 第3次산업의 開放壓力을 받아왔다. 이제는 더이상 고립될 수 없고 相互主義的 協力を 도외시 할 수 없음을 知覺한 日本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第3次산업의 均衡的 育成은 물론 國際化戰略까지 擇하고 있는 것 같다. 日本은 金融·보험·증권 등 金融産業이나 스포츠·觀光·레저 등 享樂産業 또는 知的所有權을 중심으로 한 精神文化産業은 물론 특히 情報化社會에 따른 未來指向의 新種産業育成에 注力하고 있다.

6. 바람직한 對應戰略

韓國經濟는 成長面에 있어서는 新興工業國의 先頭走者格이나 아직도 産業間 不均衡이라는 많은 병목현상을 갖고 있으며 技術水準의 低位로 國際競爭力이 약하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産業構造面에 있어서는 先進工業國을 추적하면서 또는 開途國의 추격을 받으면서 挾攻狀態에 놓여 이중적 競合關係를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地政學的 面에 있어서는 韓·美·日의 경제적 3角關係에서 對美黑字로 인해 公開的인 壓力을 받으며 對日赤字로 인해 默示的인 重壓感을 느끼면서 強者로부터 이중적 협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外債國이면서도 赤字만이 허용되고 黑字는 용납되지 않는 逆境에 놓여 있다. 더욱이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經濟理論과 實際의 여건이 乖離現象을 보이는 逆理現象이 威勢를 보이고 있어 그 對應策의 강구가 더욱 難解한 실정이다.

이러한 與件을 감안할 때 實現可能性 있는 對應策이란 韓·美·日의 3角關係를 감안한 依他的 시책과 外國의 간섭이 없는 獨自的 시책으로 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兩施策은 또한

相互關聯性을 갖고 執行되어야 하며 또 다시 長短期的인 對策과 巨視·微視的인 對策으로 細分된다.

獨自的 施策으로서 微視的이고 短期的인 對策은 各企業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經營合理化나 品質競爭에 대비하기 위한 施設現代化를 도모하는 것이며, 巨視的이고 長期的인 對策은 産業間 不均衡을 是正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國民 經제의 취약성을 제거함으로써 그 體質을 강화하는 것이다. 依他的 施策으로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은 韓·美·日의 3角關係에서의 不調和로 인한 불안을 완화시키고 市場開放이나 元貨切上의 逆效果를 各企業體가 완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며, 長期的이고 巨視的인 對策은 지나친 黑字나 赤字를 축소시키고 對外依存的 從屬性을 탈피하며 韓·美·日의 3角關係의 安定的 調和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 諸對策으로부터 對應戰略의 基本方向이 導出된다. 韓·美·日 3角關係를 安定化시키기 위해서는 對美黑字와 對日赤字를 동시에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즉 短期的으로는 不可能하겠지만 長期的으로 對日輸入先을 對美輸入先으로 전환하는 한편, 무역흑자 「달러」를 對美輸入增大에 相當함으로써 黑字規模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무역흑자 「달러」는 國民經濟의 構造的 취약성을 완화시키고, 産業構造를 高度化하며 國際競爭力을 提高시키고 對外依存的 從屬性을 축소시키는데에 效率的으로 活用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말하자면 對日輸入從屬性和 對美輸出從屬性을 탈피하기 위한 年次計劃과 國民經濟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흑자 「달러」活用 年次計劃을 樹立하여 依他的 施策과 獨自的 施策間의 調和的인 相互關聯性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國民經濟의 체질이 강화되면 先後進國 특히 美·日로부터의 협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對日輸出擴大로 赤字規模가 줄어들며 對美偏重輸出을 他地域으로 分散하여 轉換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韓·美·日 3角關係에서의 韓國의 劣弱한 位置도 補強되며 美·日의 經濟的 壓力에서도 解放될 수 있게 될 것이다. ♣